세계적인 신학자 폴 니터 교수 초청
<2011 초조대장경 천년기념, 밀레니엄 릴레이 토크>
격려의 글

소통과 공존

2011년 새해는 초조대장경 조성 천년이 되는 아주 뜻 깊은 해입니다.
천 년 전, 우리 민족은 외세 침략 앞에 무력으로 맞서지 않고 오히려 한 글자 한 글자 부처님 말씀을 새김으로써 전란으로 흩어진 마음을 한데모아 국난 극복의 의지를 키우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당시 고려인의 마음은 오직 하나, 사회 안정과 평화에 대한 간절한 발원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아직도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전쟁을 이겨낸 민족이라는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통해 반만년 뿌리 깊은 한민족 공동체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총칼보다 강하고 의지는 희망 찬 미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연평도 사건 이후 남북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묘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또한 정부의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는 국론을 사분오열 갈라놓고 있으며, 비이성적이고 배타적인 종교인들의 행위로 인해 종교조차 불신을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한데 모아 국난을 극복했던 고려인의 웅지와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오늘입니다. 이에 뜻있는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좌표를 잃은 이 시대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로 소통하며 평화를 만들어 가자는 뜻에서 모인 오늘의 대화를 계기로 21세기 문화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배려와 공존"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꽃피워지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리이타의 정신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실천이라 믿습니다.
모든 생명의 화합과 평화를 발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합장